

농업 농촌 종합대책 전면 점검·조정키로

농림부 연말까지 FTA·DDA 협상 연계 종합적 보완

정부는 지난해 11월 쌀 협상결과에 대한 국회비준에 따른 후속조치의 이행상황과 단가보완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한-미 FTA,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에 대응해 지난 2004년 2월 수립한 농업·농촌종합대책의 전면적인 점검·농촌종합대책의 전면적인 점검·조정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 연말까지 농업계와 함께 범부처적으로 방안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림부(장관 박홍수)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농업·농촌 종합대책 점검 및 조정방안』을 지난달 28일 국회에 제출했다.

보고서 주요내용은 ▲쌀 협상결과 비준동의과정에서 농업계에 약속한 18개 과제 이행상황 ▲쌀 협상 준비에 따른 후속조치 ▲전면적인 농업·농촌종합대책 점검·조정방안 등이다.

이번 점검·농촌종합대책 점검·조정방안 등이다.

이번 점검·조정방안은 지난해 쌀 협상결과 국회비준시 농업계와 국회에서 농업·농촌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요청한 데 대해 정부가 지난 3개월간 농업인단체·전문가·정부내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것이다.

농림부는 농업·농촌문제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해준 농업인단체에 고마움을 표하고 향후에도 농업계의 실질적인 정책참여의 폭을 넓혀 나가며 정책결정과정에서부터 투명한 참여행정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농림부와 주요 농업인단체는 지난 12월부터 식량, 유통 등 6개 분야별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해 지난 3달간 농업계, 지자체 등이 제안한 과제에 대해 총 27회의 워크숍과 협의회를 진지하게 진행했다.

이를 통해 농업·농촌문제를 1백 55개과제로 체계적으로 정리해 향후 점검 작업의 기초를 제공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축산분야 개방화 정책

농림부의 올 축산정책은 한·미 FTA에 중점을 두겠다는 계획이다. 축산인들의 눈과 귀가 앞으로 본격적으로 전개될 한·미 FTA 협상에 쏠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농림부는 한·미 FTA 대비한 국내 종합대책 마련에 심혈을 쏟아붓는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브랜드 육성을 통한 소비자신뢰 확보, 자연순환형 친환경 축산기반 확산, 돼지 만성소모성 질병 등 방역 강화, 수출확대와 신성장산업 발굴·지원을 중점과제로 선정, 개방화시대에 지속 가능한 축산업 구축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본지는 각 과별로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내용을 정리한다.

■ 축산정책과(과장 김경규)

“뒤편이 해도 앞으로 축산정책은 한·미 FTA 협상에 대비한 대책 마련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김경규 축산정책과장의 일성으로 그만큼 한·미 FTA가 국내 축산업의 지형을 바꿀 수도 있을 만큼 큰 영향을 미칠 메가톤급 협상이기 때문이다.

김 과장은 이에 따라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물은 협상시 양허제외, 관세 일부 인하, 관세 철폐기간 장기화 등 예외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생산비 절감 등을 통한 지원방안, 피해구제 방안, 추가 재원조달 방안 등 국내 대책을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도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축산국에 연구기관, 관련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한편 협상과 국내대책 수립 전과정에서 생산자단체 등 관련 단체와 긴밀한 협력 체제를 유지한다는 계획도 밝힌다.

이와 아울러 ‘공격이 최선의 방어’인 만큼 우리 축산물을 해외로 수출하기 위해 축산물 수출 관련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수출 물류비 지원을 지속하면서 중장기적 수출 생산기반 구축도 유도할 계획이다.

김 과장은 마필산업을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승마 활성화를 통한 말 수요 기반 확대와 경마에서 승마로 이어지는 마필산업의 선 순환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촌개발사업과 승마체험관광을 연계지원 하는 한편 승마체험 프로그램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가축공제가 농가경영안정의 주된 장치로 정착되도록 주요 가축의 가입률 50% 이상 달성 목표로 활성화토록 하고, 이를 위해 가축공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김 과장은 친환경축산직불제와 관련, 조사료 생산 확대사업과 연계하여 사료용 총체보리와 호떡 파종을 통해 축산농가의 신규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축사주변 악취와 해충 방제를 위해 환경개선제 구입비용의 50%를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포함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가축개량과 관련해서는 지난 5년간 축종별로 개량 성과 분석과 함께 소비자의 기호변화, 개량대상 형질 및 기술발전 등을 고려하여 생산성 위주에서 품질 향상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개량 목표를 조정하겠다는 것이다.